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TENDERNESS OF THIEVES

가제 : 다정했던 도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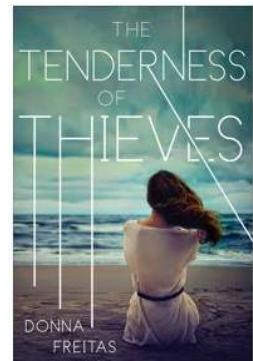
저자 : Donna Freitas

출판사: Philomel Books

발행일: 2015년 5월 26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소설



열일곱 소녀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불길한 사랑, 지독한 악몽을 일깨우는 그의 숨겨진 비밀

끔찍한 일을 겪고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어 괴로워하던 소녀에게 뜨거운 사랑이 찾아온다. 마치 하늘이 보상이라도 해주려는 건가, 싶을 만큼 너무나 자상한 남자와 꿈 같은 나날을 보낸 것도 잠시, 그가 감추고 있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난다. 소녀가 겨우 잠재운 악몽을 일깨울지도 모르는 그 비밀은 또 다시, 전보다 훨씬 더 거센 파란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심리 스릴러와 로맨스 소설이 결합된, 한여름과 잘 어울리는 매력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하얀 눈송이가 창가에 가만히 떨어지며 예쁜 그림엽서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던 2월의 어느 날, 제인에게 그 평온한 바깥 풍경과 정반대의 상황이 들이 닥쳤다. 순식간에 남자들이 집 안으로 쳐들어오더니, 한 명이 제인의 등 뒤에 몸을 바짝 붙이고 서고 그 남자가 움켜쥔 날카로운 칼이 목을 세게 눌렀다. 눈까지 가려져 보이는 거라곤 그 남자의 신발 끄트머리가 전부인 상황. 제인은 제발 놓아 달라고 간청했지만 소용없었다. 남자는 칼 끝이 목의 부드러운 살갓을 찢러대도록 손에 잔뜩 힘을 준 채 일당들에게 계속 무언가를 지시했다. 꽃병이며 가구가 다 쓰러지고 깨지는 소리,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지독한 화장품 냄새와 그 냄새로도 감춰지지 않은 몸의 악취에 제인은 정신이 점점 혼미해져 갔다. 조금이라도 허튼 짓을 하거나 비명을 지르면 그가 지체 없이 목을 그어버릴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나마 제인은 운이 좋았던 걸까, 다행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제인은 무사히 살아남았고, 대신 경찰이던 아버지는 그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여름이 성큼 다가왔지만 제인은 그 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지냈다. 그런 그녀에게 기적처럼 남자친구가 생겼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닌, 여학생들 사이에서 잘생기고 섹시하기로 유명한 헨델 데이비스와 설레는 사랑을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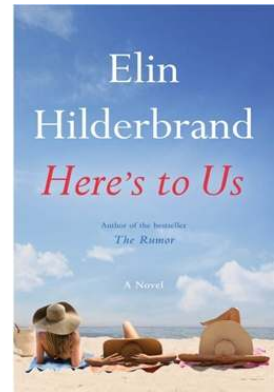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강도 사건, 태어나 처음 경험한 뜨거운 감정, 스릴러와 로맨스의 결합

온 동네 사람들이 이웃 사생활까지 다 꿰고 있는 좁은 해안가 마을에서, 헨델은 멋진 외모 말고도 사실 다른 이유 때문에 사람들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리는 남자였다. 어울리는 친구들이 하나같이 말썽만 피우고 사악한 짓만 골라서 한다는 소문이며, 헨델의 가족들도 위법 행위를 일삼는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하지만 제인은 원래 직접 확인하지 않은 소문은 잘 믿지 않는 성격이었고, 막상 만나보니 헨델은 소문처럼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었다. 누구보다 자상하고 친절하고, 함께라면 지난 겨울의 끔찍한 악몽도 떨칠 수 있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 마지막 여름방학도 신나게 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제인은 항상 붙어 다니는 친구들인 태미, 브리짓, 미켈라와 함께 다가올 여름을 무조건 마음껏 즐기기로 마음 먹는다.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으니 좀 그래도 된다고 스스로 위안하며, 헨델에게도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제인에게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과 열정은 물론, 깊숙이 숨어 있던 제인의 또 다른 모습을 끌어내는 사람이었다. 제인은 그와 함께 있으면 지옥 같은 기억도 다 사라지고, 너무나 자유로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완벽한 여름을 기대했던 제인에게, 뜻밖의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가 몰래 감추고 있던 묘한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는데, 제인이 2월에 겪은 끔찍한 일과 분명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일상생활을 겨우 다시 시작한 제인을 또 다시 산산조각 내버릴지도 모를 그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난다.

<저자 소개>

돈나 프레이타스(Donna Freitas)는 소설과 비소설을 쓰는 작가로 대학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YA 시리즈 소설 『Unplugged』와 『The Possibilities of Sainthood』, 『This Gorgeous Game』, 『The Survival Kit』, 『Gold Medal Summer』 등이 있다.

제목 : HERE'S TO US
가제 : 여기 모인 우리
저자 : Elin Hilderbrand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16년 6월 14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소설



최정상 요리사의 갑작스러운 죽음, 어쩔 수 없이 그의 여름 별장에 모인 세 아내와 세 아이들

5월 6일, 뉴욕의 오래된 구식 이발소에서 면도를 받던 존 버클리는 휴대전화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뜨자, 평소와 달리 주저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까다로운 이발소 사장님은 면도 중에 통화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지만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었다. 30년째 에이전트로 일하는 존의 첫 번째 고객이자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인 디컨이 48시간째 연락두절 상태였기 때문이다. 밤새 또 싸움에 휘말려 잡혀간 바람에 어느 경찰서에서 전화를 했거나, 디컨이 즐거가는 술집에서 친구 좀 데려가라고 연락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수화기 건너로 들리는 낯선 음성은 낸터킷 경찰서의 서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낸터킷이라면 디컨의 낯아빠진 여름 별장이 있는 섬이었다. 디컨 때문에 전화했냐고 다급하게 묻는 존에게, 서장은 상상치도 못한 소식을 전했다. 그 낯은 별장 ‘아메리칸 파라다이스’에서 디컨이 홀로 죽은 채 발견됐다는 것이다. 아침 일찍 근처 주민이 쓰러져 있던 디컨을 발견하여 신고를 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고, 검사 결과 전날 저녁에 갑자기 찾아온 관상동맥 혈전증이 사인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얼굴 반쪽만 면도를 한 괴상한 물골로 낮이 나간 채 이발소를 나선 존은, 디컨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대신 해달라는 경찰서장의 당부를 떠올렸다. 로렐, 세이스, 벨린다, 앤지, 스칼렛, 엘리리. 여섯 명을 다 불러모아야 한다.

미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인기를 구가하던 요리사 디컨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전해지자, 그가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낸터킷 섬의 여름 별장으로 그의 가족들이 찾아온다.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던 디컨의 ‘가족’은 세 명의 아내와 세 명의 자식들이었다. “아들과 단 둘이서 보내는 가장 완벽한 하루.” 디컨은 열세 살 때 아버지와 처음으로 낸터킷에서 단 둘이 보낸 환상적인 여름 휴가의 기억을 평생 가슴에 간직한 채 살았고, 성공하자 그곳에 별장부터 사들였다. 그 꿈 같은 추억을 선사한 뒤 홀연히 사라져버린 아버지처럼 아들과 그런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별장에서 세 명의 여자와 차례로 결혼식을 올렸지만, 결혼 생활은 세 번 다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세상이 다 아는 유명인사가 되고도 디컨의 마음속은 중독과 우울증, 이겨내기 힘든 스캔들로 멍이 들었다. 결국 산더미 같은 빛만 남은 상태로, 마치 죽을 걸 예상이라도 한 사람처럼 자신이 죽으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작별인사를 해달라는 별난 유언장을 작성해두고 혼자 세상을 떠난 것이다.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 제각기 다른 추억과 아픔들, 한 남자를 위한 세 라이벌의 작별 인사

존은 친구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그리고 그의 유언장 내용을 정식으로 알리기 위해 ‘아메리칸 파라다이스’로 그의 전처들과 아이들을 정말 힘들게 불러모았다. 디컨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와 결혼했던 여자들, 그래서 서로 끔찍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세 여자가 한 공간에 모인 것을 보고 존은 스스로의 능력에 놀라 환호성이라도 지르고 싶을 정도였다. 디컨의 첫 번째 아내, 로렐은 디컨과 고등학교 때 친구로 만나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해서 헤이스라는 아들을 낳아 행복한 한때를 보냈었다. 두 번째 아내인 벨린다는 할리우드의 잘 나가는 연예인으로 먼저 디컨을 뺨 차고 가버린 여자였고, 서류상으로는 현재 디컨의 공식적인 미망인이라 할 수 있는 세 번째 아내 스칼렛은 남부 출신의 아리따운 여성으로 디컨이 벨린다와 살 때 함께 입양했던 딸 앤지를 돌봐줄 유모로 왔다가 그와 눈이 맞아 결혼까지 했다.

좁디 좁은 별장에 모인 여섯 명의 가족과 존은 불과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싸우고, 혈뜬고, 서로 비난하기 시작한다. 각자 외면하며 살았던 시간들, 드러내지 못한 질투심, 오랫동안 몰래 숨겨온 비밀과 거짓말들이 튀어나오고 혼란스러운 감정과 눈물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의 가슴을 때린다. 과연 이들은 디컨의 소원대로, 절대 봉합될 수 없는 상처와 서로를 향한 미움의 감정을 잠시나마 접어두고 자신들이 사랑했던 한 남자를,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한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을까?

전혀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가장 원치 않았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뜻밖의 위안을 찾아가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저자 소개>

엘린 힐더브랜드(Elin Hilderbrand)는 존스홉킨스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공부했다. 『The Rumor』, 『Beautiful Day』, 『Summerland』, 『Silver Girl』 등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소설을 여러 편 발표했으며, 작품 전체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총 500만 부가 넘게 판매됐다.

제목 : A LIFE WITHOUT YOU

가제 : 네가 없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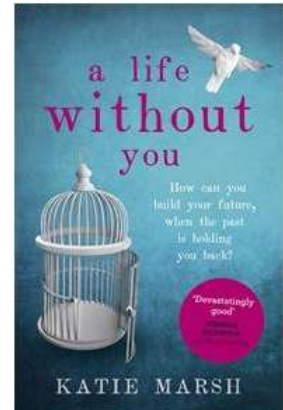
저자 : Katie Marsh

출판사: Hodder & Stoughton

발행일: 2016년 7월 14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소설



설레고 긴장되는 결혼식을 몇 시간 앞두고 울린 전화, 몇 년째 연락도 없던 엄마의 구조 요청

하늘이 정해진 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제이미와 드디어 부부가 되는 날, 조는 아침부터 속이 불편했다. 머리도 어지럽고, 쿵쿵대는 심장은 도무지 진정되지 않았다. 결혼식 날 모든 신부가 그러겠거니 생각했지만 자꾸만 올라오는 헛구역질 때문에 문턱이 닳도록 욕실을 드나드는 조를 보고 있자니 아버지도, 여동생 릴리도 속이 바짝바짝 탈 지경이었다. 너무 긴장한 탓일까? 릴리의 말처럼 끝내 엄마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은 죄책감이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걸까?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 조는 자신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잘 알고 있었다. 불과 몇 십분 후면 결혼행진곡이 울려 퍼질 그 시점에, 이토록 아름답게 장식된 호텔에서 제이미와 결혼하기로 한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나 계속 의구심이 들었다. 자신이 그에게 어울리는 짝이 맞는지, 제이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신경을 건드렸다. 그런 속도 모르는 제이미는 신부 대기실 문 앞까지 찾아와 또 다시 사랑을 고백했고, 조는 그의 절절한 고백을 듣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조금 뒤 울리기 시작한 릴리의 전화벨 소리가 그와의 대화를 끊어버린 것이 반가울 정도였다. 그런데 조가 힐끗 보니 동생의 전화기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맥 아줌마였다. 조가 벌써 몇 년째 연락도 하지 않고 얼굴도 안 보고 지내는 엄마와 가장 친한 친구. 릴리는 나중에 통화하면 된다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조는 그냥 받으라고 직접 통화 버튼까지 눌러줬다. 그때만 해도 그 통화가 조의 그 날 하루를, 그리고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줄은 조도 릴리도 전혀 생각지 못했다.

조는 열여섯 살 때 집을 떠나버린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다. 릴리는 그래도 결혼식에 초대해야 하지 않냐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지만 조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릴리에게 전화를 건 맥 아줌마는 지금 당장 조가 와야 한다고, 엄마가 경찰서에 잡혀 있으니 와서 좀 도와줘야 한다고 다짜고짜 고향을 쳤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냥 무시하고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조는 돌연 엄마가 있는 곳에 가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끌림이, 마음 속에서 강하게 일어난 그 감정을 조 자신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아침부터 머릿속을 짓누르던 고민들, 결혼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과 오늘따라 유난히 떠오르던 어린 시절의 엄마 생각이 겹쳐지면서 맥 아줌마의 전화가 무언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결국 조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호텔을 빠져 나와 얼른 택시에 올라탔다. 그리고 곧장 엄마가 붙잡

혀 있다는 경찰서로 향했다.

어둡고 무거운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서하고, 용서 받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가는 관계들

런던 시내를 빠져나간 택시는 한창을 달려 낮선 동네에 도착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택시에서 내리는 조를 보고 맥 아줌마는 기겁을 하며 달려왔다. 조 역시 아줌마가 어릴 때 본 모습과 너무 달라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소파나 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한 손에 와인 잔을 들고 항상 침착한 말투로 이야기하던 아줌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껌을 잘근잘근 씹어대며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놀라기에는 일렀다. 조에게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 마주한 엄마는, 조의 기억에 남아 있는 모습이나 꿈속에서 만났던 예전의 엄마 모습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모습도, 그리고 정신 상태도 모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엄마. 맥 아줌마는 엄마가 병으로 아주 천천히 기억을 잃어가는 중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한다. 대체 그 동안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사연을 알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과거의 상처를, 자신만 두고 혼자 도망쳐버린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 조는 엄마를 그토록 비난하며 살아온 자신도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제이미를 결혼식장에 남겨두고 도망쳐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용서하기 위해, 그리고 용서 받기 위한 조의 한 걸음 한 걸음에는 큰 감동과 함께 무거운 과거를 딛고 새롭게 열어가는 미래의 희망이 담겨 있다.

<저자 소개>

케이티 마쉬(Katie Marsh)는 의료 분야에서 일하며 영국 전역의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의 용기와 놀라운 사연에서 영감을 얻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데뷔소설 『MY EVERYTHING』은 「이브닝 스탠다드(Evening Standard)」로부터 ‘2015년 가장 주목할 만한 여름 데뷔소설’로 선정됐다.

제목 : FOLLOW ME

가제 : 팔로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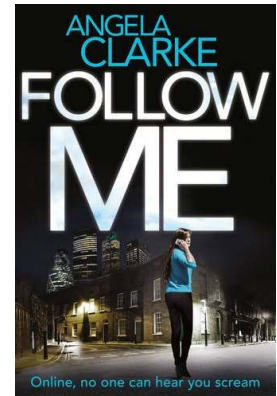
저자 : Angela Clarke

출판사: Avon

발행일: 2015년 12월 31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소설



트위터로 살인을 예고하는 범죄자, 팔로워 수만큼 늘어나는 희생자, 소셜 미디어의 어두운 단면

‘좋아요’, ‘공유하기’, ‘팔로우하기’. 소셜 미디어에서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을 극단적으로 이용하는 살인마가 나타났다. 트위터에 자신이 저지를 살인의 단서를 미리 올리고, 예고한 방식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이 잔인한 범죄자는 경찰을 대놓고 조롱하며 언론의 폭발적인 관심을 얻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가 던지는 단서에 엄청난 호기심을 느끼며 살인자의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팔로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목숨을 잃는 희생자의 수도 늘어난다. 관심을 얻는 데 혈안이 되어버린 이 정신 나간 살인자를 막기 위해 오래 전 멀어진 두 친구, 나스린과 프레디가 나섰다. 일명 ‘해쉬태그 살인자’보다 먼저 살인이 벌어질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피 말리는 싸움이 시작된다.

프레디는 취재기자가 되려고 몇 년째 노력 중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언론사에 자리를 잡으려던 꿈은 아무리 애써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꿈을 버릴 수는 없었다. 먹고 살기 위해 야간에는 시내 커피숍에서 일하면서 온갖 잡지사며 신문사에 원고료도 못 받는 글을 투고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다. 일정한 수입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프레디의 삶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스마트폰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간밤에 연락한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고, 트위터에 접속해서 뉴스거리가 없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프레디의 일상이었다. 어딜 가나 들들 볶기만 하는 사장들이며 몸을 편하게 누일 공간도 없는 좁은 소파에서 잠을 청하면서 온라인에서 만난 남자들과 가끔 밖에서 만나 하룻밤을 보내는 생활 속에서도 프레디는 늘 ‘한 방’을 기다렸다. 자신이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기사를 쓰겠다는 일념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 프레디의 눈 앞에, 어느 날 하늘이 응답이라도 하듯 나스린이 나타났다. 프레디가 일하는 커피숍에 손님으로 찾아온 나스린과 8년 만에 재회한 프레디는, 친구가 런던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라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다. 나스린이 도와준다면 늘 꿈에 그리던 사건 기사를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옛 친구를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로 여긴 프레디는 나스린의 연락처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고, 친구의 전화기에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앱까지 몰래 설치한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 프레디는 온 방안이 피 냄새로 진동을 하는 살인사건 현장을 직접 보고 만다. 해쉬태그 살인자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이었다.

비밀을 안고 멀어진 두 친구의 기억과 갈등, ‘해쉬태그 살인마’를 잡기 위한 숨막히는 두뇌 싸움

나스린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보고 친구가 있는 장소로 찾아간 프레디는 목이 잘려나간 시체와 벽 전체에 흩뿌려진 핏자국을 보고서야 사태를 깨닫고 발길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그런데 몰래 범죄현장에 들어왔다가 나스린에게 딱 걸린 프레디가 불법 침입 혐의로 구속될 위기까지 처한 순간, 경찰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는다. 프레디가 스마트폰이며 소셜 미디어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이 희대의 살인마를 잡을 수 있도록 자문가로 일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트위터로 살인을 예고하고, 그저 가상공간에서의 협박으로 끝내지 않고 정말로 살인을 저지르는 자, 그의 정체를 밝히려면 소셜 미디어를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했다. 놀랍게도 런던 경찰청에는 트위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수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그리하여 프레디는 본격적으로 나스린과 함께 ‘해쉬태그 살인마’ 검거 작전에 투입된다. 살인을 예고한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살인자의 팔로워 수는 시간 단위로 폭증하고 그만큼 늘어나는 희생자의 수는 경찰의 목을 조여 오는데, 8년 만에 만난 프레디와 나스린의 사이에 상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한때는 더 없이 끈끈했던 두 사람의 우정,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두 사람만의 비밀, 그리고 둘이 남남처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되살아나면서 프레디와 나스린을 괴롭힌다. 이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 두 사람은 미친 듯이 폭주하는 살인마를 잡을 수 있을까?

정통 추리소설이 소셜 미디어라는 최신 기술과 만난 것 같은 참신한 이야기로, 빠르게 전개되는 범죄 행각과 등장 인물의 숨겨진 과거, 반전이 뒤엉켜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만든다. ‘아마존’에서 2016년 1월의 ‘라이징스타 데뷔소설(Amazon RISING STAR Debut)’로 선정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앤젤라 클락(Angela Clarke)은 패션 분야에서 일하다가 소설, 칼럼, 각본을 쓰는 작가가 되었다. 회고록 『Confessions of a Fashionista』는 아마존 패션 도서 부문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각본 『The Legacy』는 연극으로 제작되어 2015년 6월에 첫 공연이 이뤄졌다. 이후 「가디언」, 「인디펜던스」, 「데일리 메일」, 「코스모폴리탄」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2015년에는 출판계에서 촉망 받는 인물에게 수여하는 ‘영 스테이션너 상(Young Stationers' Prize)’을 수상했다.

NON-FICTION

제목 : LAST-MINUTE TRAVEL SECRETS

가제 : 최후의 여행 비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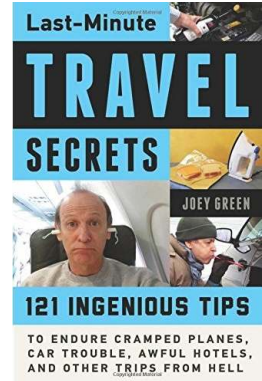
저자 : Joey Green

출판사: Chicago Review Press

발행일: 2016년 5월 1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여행



여행 중에 맞닥뜨리는 각양각색 문제들, 일상용품으로 똑딱 해결하는 121가지 기발한 아이디어

여행을 하다 보면 온갖 난관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그런 상황에서 짜증을 내봐야 기분만 점점 더 나빠질 뿐이고, 기지를 발휘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장기간 배낭여행을 할 때는 물론이고 주말에 하루나 이틀 정도 아주 짧은 여행을 가도 예기치 못한 일들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약간의 독창성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로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물건을 정해진 용도 말고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도움이 된다. 결혼 후 아내와 2년 동안 신혼여행 삼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배낭 여행을 즐긴 저자는, 그렇게 떠올린 121가지 독특한 여행 팁을 이 책에서 공유한다. 벌레로 들끓는 더러운 호텔방에서도 무사히 심지어 편안하게 잠을 자는 법, 차가 빼곡히 들어찬 주차장에서 내 차 찾는 법, 뽁뽁대는 아기 울음소리에서 벗어나는 법 등 저자가 제시하는 팁은 다소 얼빠진 소리처럼 들리지만, 효과 하나만은 끝내준다.

여성용 대형 생리대로 슬리퍼를 만들고, 테니스 공으로 헤드폰의 소음 차단력을 높이고, 옷걸이로 호텔 커튼을 단단히 여미는 방법이나 지도에 헤어스프레이를 뿌려서 찢어도 찢어지지 않게 만드는 법, 귀중품을 면도용 거품 캔에 보관하는 법, 클립으로 캐리어 잠그는 법, 심지어 와인따개가 없을 때 신고 있던 스니커즈로 코르크 마개를 제거하는 법 등 저자가 직접 여행을 하면서 실제로 맞닥뜨린 상황에서 효과를 톡톡히 얻었던 방법들이 소개된다. 어디를 가든 배낭에 항상 살균제 스프레이와 살충제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니며 탈취제로도 활용하고 지저분한 잠자리 소독에도 활용했다는 저자와 아내는 바퀴벌레가 우글대는 호텔방에서도 침대 위에 텐트를 펴고 침낭 속에서 편히 잠을 자는 기지를 발휘했다. 또 찢어진 텐트의 망사 부분은 치실로 수선하고, 모스크바에서 베이징까지 기차로 이동할 때는 생수 한 통으로 샤워하는 기술을 터득하고, 페루 안데스 산맥 어딘가에서 캠핑을 할 때는 뽁뽁해진 침낭 지퍼에 립밤을 발라서 간단히 고쳤다. 어디 그 뿐인가, 술 반입이 금지된 크루즈선에 오를 때는 구강세척제 병을 하나 마련해서 술을

담고 식용색소를 넣어서 몰래 술을 가지고 들어갔다! 바람이 쐬쐬 들어오는 캠핑카 창문은 랩으로 똑딱 해결하고, 두루마리 휴지는 CD 케이스에 담아서 어딜 가든 젖지 않게 보관했다.

저자가 떠올린 기발한 여행 팁은 말로 하는 설명으로 그치지 않고, 페이지마다 컬러 사진과 함께 제작 방법과 활용법이 아주 상세하게 소개되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즐기려고 떠난 여행에서 마주친 짜증스러운 상황을 유쾌한 아이디어로 금세 해결하면서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과 마음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1. 짐 싸는 법

- 귀중품은 면도기 거품 캔에
- 냉동실용 지퍼락으로 옷 정리하기
- 청소기로 진공포장하기 등

2. 비행기와 공항에서

- 신문지를 이용하여 공항에서도 편하게 자는 요령
- 납치범을 커피 주전자로 무력화시키는 법
- 귀가 멍멍해지는 증상을 물컵으로 해결하는 법 등

3. 호텔인지 가족우리인지

- 옷걸이로 커튼 봉쇄하는 법
- 화장실 휴지 걸이에 돈 숨기는 법
- 뿌연 욕실 거울을 면도 거품으로 닦아내는 법 등

4. 크루즈선 혹은 배 안에서

- 식용색소를 이용하여 몰래 술 반입하는 법
- 생강으로 뱃멀미 이겨내는 법
- 테이프로 샴페인의 탄산을 지켜내는 법 등

5. 기차와 버스에서

- 생수 한 병으로 기차에서 샤워하는 법
- 아기용 물티슈로 목욕하는 법 등

(이하 생략)

<저자 소개>

조이 그린(Joey Green)은 「롤링스톤」, 「타임」 등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하면서 『Last-Minute Survival Secrets』, 『Joey Green's Fix-It Magic』, 『Polish Your Furniture with Panty Hose』 등 50권이 넘는 저서를 발표했다.

제목 : A HISTORY OF THE WORLD IN 500 WALKS

가제 : 세계사와 함께 걷는 도보 여행지 500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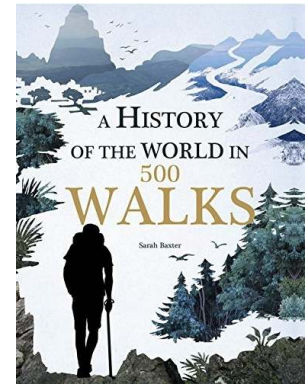
저자 : Sarah Baxter

출판사: Thunder Bay Press

발행일: 2016년 6월 14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역사



인류의 조상처럼 천천히 걸으면서 풍경과 역사를 체감할 수 있는 전 세계 여행지 500곳

무엇이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능력을 갑자기 가지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택할 것이다. 그만큼 여행 자체가 주는 기쁨도 남다르지만, 여행의 커다란 매력 중 하나는 아주 오래 전에 사라진 시대를 눈으로 확인하고,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어떻게 변모했는지 상상력을 발휘해볼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리라.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가는 역사 여행에서 걷기만큼 유익한 이동수단은 없다. 차나 비행기, 기차를 타는 대신 인류 최초의 조상들이 그랬듯 천천히 걷다 보면 무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같은 장소를 고대인들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걸으면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가장 생생한 역사 속에는 오랜 세월에도 변하지 않은 산의 풍경과 수많은 순례자들이 꺾꺾 밟아서 다져진 길, 수세기 전에 지어졌지만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는 건축물의 숨은 사연들이 모두 녹아 있다. 저자는 걸어서 역사와 만나는 ‘시간 여행’ 안내서로 이 책을 활용해보라고 권한다. 이를 위해 선사시대부터 21세기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거나 역사의 숨결이 진하게 남아 있는 전 세계의 도보 여행지 500곳을 선별하고, 각 장소의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지도, 이동 경로, 보기만 해도 감탄을 자아내는 사진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책은 총 여섯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선사시대부터 시대순으로 분류된다. 그랜드 캐니언의 높은 가장자리를 따라 쪽 걸어가면서 수백 년 전에 형성되고 침식된 그 장대한 풍경을 관찰할 수 있는 코스는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지리 학습장이 될 것이고, 페루 안데스 산맥을 따라 4일에 걸쳐 돌아보는 잉카 트레일 코스는 500년이 지나도 거의 변하지 않은 도시의 흔적과 시간차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잉카인들의 천재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 베를린 장벽 트레일에서는 1989년에 사라진 서독의 흔적을 느낄 수 있고, 그린란드에서 북극권 한계선을 따라 걷는 코스는 대자연이 만들어놓은 거대한 자연의 조각품과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는 현대 도시의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난 묘한 풍경을 목격할 수 있다. 요르단 서남부의 고대도시 페트라와 도보 여행지, 19세기에 밀수꾼들이 모여들던 영국 남서부 해안가 코스도 여행자의 발길을 잡아 끄는 매력이 가득하다. 저자가 꼽은 500곳의 역사 여행지 중에는 한국의 백두대간 트레일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중세시대 243번째 여행지로 분류된 백두대간은 한국의 ‘척추’로 소개되며 풍수지리의 의미도 간략하게 나와 있다. 저자는 원래 북한의 백두산부터 지리산 천왕봉까지가 온전한 백두대간이

지만 북한에 속한 곳은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전하며, 총 735 킬로미터에 달하는 코스를 상세히 소개한다.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원시인들, 로마 제국을 만든 사람들, 마야 문명을 세운 사람들, 중세 순례자들, 제2차 대전의 군인들부터 하늘 높이 솟은 산을 찾아 다닌 탐험가들, 금광을 좇아 다닌 사람들, 실크 상인들이 밟고 지나가며 만들어진 길들을 따라 걸어가며 각각의 길에 담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볼 수 있는 여행 안내서이자 역사서다.

<목차>

머리말

1장. 선사시대

2장. 고대의 세계

3장. 중세시대

4장. 현대를 향하여

5장. 19세기

6장. 20세기

<저자 소개>

새라 벅스터(Sarah Baxter)는 잉글랜드 노리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자연스레 산을 좋아하게 되었다.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미국을 여행하며 여행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2002년부터 여행 잡지 「Wanderlust」에서 일해왔고 현재는 부편집장을 맡고 있다. 「가디언」, 「텔레그라프」, 「인디펜던트」를 비롯해 『론리 플래닛』에도 도보 여행에 관한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LOADED

가제 : 장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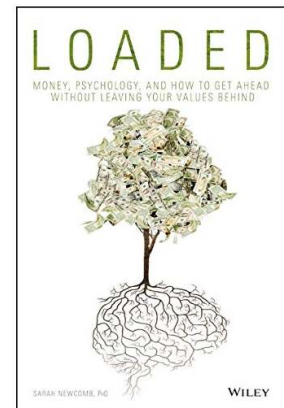
저자 : Sarah Newcomb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6년 4월 18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경제



돈과의 관계, 돈을 대하는 심리학적인 뿌리를 확인하고 중요한 가치를 지키며 돈을 관리하는 법

돈은 화려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마음에 평화를 안겨주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와 불평등,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자 탐욕의 대상이기도 하다. 흔히들 ‘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돈과 인간의 관계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다. 개개인이 돈을 대하고 다루는 방식에는 지나온 삶의 역사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돈은 지극히 단순하고 수많은 가능성을 품은 유용한 자원이며,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인간과 돈의 관계에서는 돈의 액수보다는 그 액수가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이고, 무슨 사연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성장과정에서, 혹은 살면서 경험한 일을 토대로 각자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에서 돈과 맺는 관계의 뿌리가 정해지고, 이는 돈을 관리하고 다루는 방식의 토대가 된다. 투자관리업체 모닝스타(Morningstar)에서 행동 경제학자로 일해온 저자는 돈을 어떻게 해야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통적인 조언에서 벗어나 참신한 시각으로 접근한다. 돈과 관련된 개개인의 경험과 심리학적 요소가 무의식 중에 자산 관리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

책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룬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돈이란 무엇인지 포괄적인 의미를 짚어보고, 문화적, 사회적 현상과 접목시켜 우리 삶에서 돈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생각해본다. 독자가 지금까지 내면에 만들어온 돈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돈과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진단해볼 수 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4장에서는 개인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 저자가 ‘장전(LOADED)’라고 이름 붙인 이 방식에는 전통적인 자금 관리 방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활용된 몇 가지 심리학적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 스스로 깊은 만족감을 느끼면서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금융 관리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돈에 관한 생각과 믿음이 뿌리부터 잘못 형성되었다면, 그것이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바로 그 뿌리를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제아무리 효과적인 돈 관리 요령도 돈에 대한 인식이 잘못 자리잡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저자는 돈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할 수 있

는 다양한 정보를 먼저 제시한 뒤 주어진 예산을 ‘사람 중심’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 더불어 돈에 관한 심리학적 접근 방식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평가지를 제공하여, ‘LOADED’를 실행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사례 연구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돈과 맺어온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 새롭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이끌어주는 지침서다.

<목차>

머리말

- 1장. 돈에 관한 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2장. 돈의 메시지
- 3장. 빈곤, 특권, 편견: 돈의 심리학에서 충돌하는 문제들
- 4장. ‘LOADED’: 인간 중심의 재무관리계획
- 부록 A: 자가 평가지
- 부록 B: 문제 해결 도구, 연습문제

<저자 소개>

새라 뉴콤(Sarah Newcomb)은 재무 의사결정의 심리학에 관한 전문가로, 모닝스타(Morningstar, Inc.)에서 행동 경제학자로 근무하고 있다. 금융경제학 석사, 행동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동과학을 재무관리에 적용해 왔다. 강연, 저술, 제품개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제목: MY BEER YEAR

가제: 나의 맥주 인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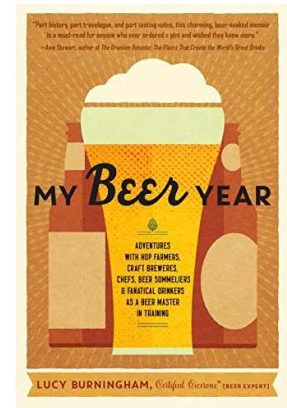
저자: Lucy Burningham

출판사: Roost Books

발행일: 2016년 10월 25일

분량: 288 페이지

장르: 에세이



맛있는 맥주를 파는 바에서 시작해 홉 농장, 수제 맥주 양조장을 거쳐 맥주 소믈리에가 되기까지

미국에서 수제 맥주의 중심지인 포틀랜드로 거처를 옮긴 후 그저 목이 마르고 궁금해서 들이켰던 맥주의 맛에 푹 빠져버린 저널리스트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제 맥주 전문가가 된 사연을 독자들에게 들려준다. 포틀랜드에서 마신 인디아 페일 에일 한 병, 이전까지 마신 맥주와 차원이 다른 향긋함에 놀란 저자는 경기장마다 찾아 다니는 열혈 축구 팬들처럼, 수제 맥주를 만들고 판매하는 곳을 구석구석 방문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바에 앉아 맥주를 들이키던 그 열정은 양조장은 물론 홉을 재배하는 농장을 직접 찾아가보는 호기심으로 번지더니 희귀 맥주를 시음하는 파티에 참석하고, 맥주 축제라면 어디든 가보는 생활로 이어졌다. 급기야 맛있는 맥주를 마시는 것으로는 해소되지 않던 맥주 사랑은 저자를 새로운 직업으로 안내했다. ‘맥주 소믈리에’라 불리는,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공인 맥주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로 한 것이다. 세상에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제대로 배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우연히 시작된 관심이 인생을 건 도전으로 이어진 그 흥미진진한 여정이 이 책에 모두 담겨 있다.

고고학자들은 인류가 기원전 7천 년부터 맥주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한다. 곡식을 기르고 빵을 만들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그리고 무구한 세월을 지나, 이제는 프랑스에 가면 저녁식사를 즐기는 테이블에 세라믹 피처에 담긴 맥주가 나오고, 일본에서는 자판기로도 간편하게 맥주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맥주는 인간관계에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하고, 물이 깨끗한지 의심되는 지역에서는 물을 대체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숭배의 대상이다. 포틀랜드에서 제대로 된 맥주의 맛이 무엇인지 알게 된 저자는 공인 맥주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본격적인 공부에 돌입했다. 이어 유럽으로 날아가 벨기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맥주 양조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지식을 쌓고, 훌륭한 맥주를 만드는 이들에게서 확인한 철저한 장인정신과 양질의 재료에 대해 배웠다. 그리고 마침내, 집에서도 수제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직접 맥주를 양조하는 기술을 터득하고 멘토를 만들어 그의 도움으로 양조 기술의 원리를 깨우치기 시작했다. 세계 곳곳,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맛있는 맥주의 비밀을 파헤친 저자의 이야기 속에는 맥아만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며 홉을 기르는 농부들, 양조업자, 펍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맥주에 미쳐 맥주만 생각하며 사는 광 팬들의 괴짜 같은 모습들, 맥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맥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판매되고, 테이블 위에 놓이게 되는지 그 기본적인 과정을 알게 되는 것은 물론 왜 수제 맥주가 그토록 광적인 팬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훌륭한 맥주를 왜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목차>

머리말

1. 직접 만든 맥주
2. 미각을 일깨우는 맛
3. 흙 사냥꾼
4. 나도 일원이 되다
5. 담고, 흘러 보내고
6. 혈당 급상승
7. 자연 속으로
8. 부서지지 않는 체인
9. 완벽한 짝꿍
10. 로큰롤처럼
11. 심판의 날

<저자 소개>

루시 버닝햄(Lucy Burningham)은 15년 경력의 저널리스트로, 포틀랜드 주립대학교에서 논픽션 작성에 관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뉴욕타임스」, 「월 스트리트 저널」 등 다양한 매체에 수제 맥주와 맥주 문화에 관한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DEAR MICHAEL, LOVE DAD

가제 : 마이클에게, 아빠가.

저자 : Iain Maitland

출판사: Hodder & Stoughton

발행일: 2016년 7월 28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에세이



정신이 병들어 서서히 허물어져가는 아들에게 쓴 아버지의 편지, 사랑과 분노가 뒤엉킨 감정들

자식이 그저 남들처럼 건강하게 커서 대학도 가고, 직장도 갖고, 결혼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건 모든 부모의 공통된 바람이자 가장 큰 소망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자랄 줄만 알았던 아이가, 그 소망대로 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 거식증과 우울증이라는 무거운 먹구름이 찾아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아들에게 아버지는 편지를 썼다. 손으로 꼭꼭 눌러쓴 편지로, 이메일로, 찢막한 쪽지로 직접 하고 싶지만 차마 못했던 말과 한 번씩 치솟는 분노, 슬프고 애닦은 마음을 담아 아들과 소통해보려고 노력했다.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도 없고, 아들을 한 번 껴안아 준 적도 없지만 그 모든 편지는 아버지가 쓴 긴 러브레터와 다름 없다. 아이의 변화를 인지하고, 그 고통을 지켜보면서 쓴 감동적인 편지들이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됐다. 자꾸 허물어져가는 아들을 향한 애뜻한 마음과 다정한 보살핌, 분노와 신랄한 비난이 혼합된 아버지의 감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어느 아이들처럼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이클은 영국 잉글랜드 동부, 서포크의 바닷가와 가까운 집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각각 네 살, 일곱 살 터울로 동생도 두 명이 생기고, 학교도 좋은 곳에 다니고, 친구들도 사귀고, 부모님도 사이가 좋았다. 대학에 갈 나이가 되자 마이클은 학교가 있는 노리치로 거처를 옮겼다. 함께 동거하는 여자 친구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얼굴을 자주 보지는 못하는 날들이 늘어갔다. 그래서 마이클의 외모며 행동거지에 뭔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아채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아들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몸은 점점 말라갔다. 급기야 거식증 수준까지 다다른 마이클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신적인 고통들이 더 많았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지만, 어떻게든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애를 썼다. 꾸짖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살살 달래보기도 했다. 한 번 만날 때마다 아들을 웃게 만들려고 한참을 노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과 달리 아버지의 내면에서는 아들에게 일어난 일을 부인하려는 욕구가 커다랗게 자리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은 일부러 하지 않았다. 마이클이 할머니 장례식에도 오지 않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정신병원에 집어넣겠다고 욕박을 질렀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환자의 팔다리를 묶어 놓고 억지로 밥을 먹이는

옛날 정신병원의 이미지가 아직 남아있었기에 차마 아들을 그런 곳에 보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차라리 그때 가족들이 결단을 내렸으면 좋았을지도 모른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했다면 어땠을까, 아버지는 나중에야 그런 후회를 했다. 마이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갔고, 결국 폐렴으로 죽기 일보직전까지 간 상태로 병원에 실려간 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 직전까지 아들에게 쓴 편지들 속에는 끝없이 추락하는 마이클을 보면서도 억지로 무시하려던 어리석은 생각과, 한때는 어느 가족들보다 단란했던 식구들이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는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 마지막 부분에 병원 치료 중인 마이클이 직접 쓴 일기와 더불어, 아버지가 솔직한 마음을 담은 편지들에서 눈물과 웃음, 그리고 희망이 모두 녹아 있는 이 가족의 삶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그 결합의 단단함을 엿볼 수 있다.

<목차>

머리말

모든 일의 시작

등장인물 - 주연, 조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그 이후에

마이클과의 대화

<저자 소개>

이언 메이틀랜드(Iain Maitland)는 1987년부터 주로 비즈니스 분야의 저서를 50권 이상 쓴 전문 작가다. 그의 저서는 러시아, 인도, 일본, 미국,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판매됐다. 「Sunday Times」, 「Which?」, 「Financial Times」 등 여러 간행물에도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THE ABCS OF HOW WE LEARN

가제 : 배움의 원리, A부터 Z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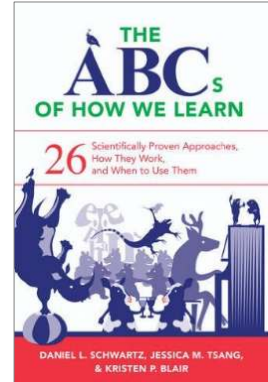
저자 : Daniel L. Schwartz, Jessica M. Tsang, Kristen P. Blair

출판사: W. W. Norton & Company

발행일: 2016년 7월 26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교육



학습의 원리와 배운 지식을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26가지 과학적인 근거

인간에게는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기술이나 어려운 지식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아기에게 바나나 껍질 벗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나 강아지에게 손짓에 따라 앉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것도 모두 가르치는 것에 포함된다. 그런데 무언가를 가르치다 보면, 어떨 때는 말이 잘 먹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내용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당사자가 느낄 때가 있다. 왜 그럴까?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학습의 코어 메카닉’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세 저자는 무엇을 가르치냐에 따라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공간적인 정보를 전달할 때는 시각적인 도구가 유용하고, 따라서 누군가 길을 물어보면 분명히 아는 곳이라도 말로 설명하기보다 지도를 펴서 보여주는 것이 정보를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도 그러한 예에 속한다. 학습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고, 무엇을 배우든 한꺼번에 그 과정을 처리해주는 신체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뇌에는 수많은 학습 체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제각기 다른 구조를 가지고 모두 다른 정보를 처리한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려면, 가장 알맞은 교수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가르치는 대상이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하려면 올바른 학습 체계를 자극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수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세 저자는 바로 이 점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예시와 탄탄한 과학적 근거에 유머 감각과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접목하여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26가지 방법을 이 책에서 제시한다.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 올바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면 그저 “힘내라!”는 말보다는 롤 모델을 접할 기회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쁜 습관을 고치게 만들려면, 의지력을 키우도록 하는 대신 생각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게임 분야에서는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플레이어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행동을 ‘코어 메카닉’이라고 칭한다. 학습의 코어 메카닉, 그것을 찾는 것이 효과적인 교수법의 핵심이자 이 책의 주제이다. 두 저자는 학습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각각의 수업 목표에 가장 잘 알맞은 지도 방법을 떠올리고,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상세히 소개한다.

알파벳 A부터 Z까지 26개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키워드로 삼은 각 장에서는 무언가를 배우

는 방식과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 효과적인 교수법과 그것을 적용해야 할 시점과 방식, 그리고 피해야 할 점들을 꼼꼼히 알려준다. 또한 학습에 관한 연구 자료도 풍성하게 제시하여 교사가 수업 내용이나 방식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 이미 확실하게 입증된 학습 이론부터 행동학, 인지 심리학, 사회 심리학은 물론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이론까지, 귀중한 자료와 팁이 가득하다.

<목차>

머리말

A(Analogy) – 비유법: 일반적인 원칙 찾기

B(Belonging) – 소속: 불안감을 가라앉히고, 받아들이는 것

C(Contrasting Cases) – 정반대의 사례: 핵심 정보 찾아내기

D(Deliberate Practice) – 계획적인 연습: 전문가가 되는 길

E(Elaboration) – 정교하게: 의미 있는 기억 만들기

F(Feedback) – 피드백: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끔 돕는 방법

G(Generation) – 생성: 오래 잊혀지지 않는 기억 만들기

H(Hands On) – 넘겨주기: 인체의 지식을 동원하는 법

I(Imaginative Play) – 상상력을 발휘하라: 인지 통제력 키우기

(이하 생략)

<저자 소개>

대니얼 L. 슈워츠(Daniel L. Schwartz)는 스탠포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학장으로, LA 등에서 중학교 학생들을 8년간 가르친 교사이자 수상 경력이 있는 교육학자이다.

제시카 M. 창(Jessica M. Tsang)은 스탠포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소속 연구자이자 강사로, 인지 신경학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타고난 학습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교수법을 연구해 왔다. 불우이웃을 위한 무료 교육 활동과 도심지 학습 환경 개선, 교육 매체 기술 개발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크리스틴 P. 블레어(Kristen P. Blair)는 스탠포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소속 선임 연구자이자 강사로, 수학과 과학 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수법을 개발해 왔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수학과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교육학과 교수법 개발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